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건축

김광년_신내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중경회장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사
와 교회가 심사숙고할 또 하나의 문
제는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계승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곧 헐릴
예배당도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지

어진 건물임을 기억하고 그 헌신을 간직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는 이제 곧 사
라질 예배당을 가슴에 담고 그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도모하였다.

1. 기존의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추억 남기기

담임목사인 나는 30년 이상 신앙의 터전이 된 예배당을 어떻게 우리 가슴 속에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목회계획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기존의 예배당을 철거하기 전
그 장소에서 ‘전교인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
일” 이었다. 전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과 말씀의 축제를 열었다. 물놀이와 공동체 놀이, 캠
프파이어까지 하며 yesterday를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축제의 날을 보내
며 교회 구석구석을 마음에 담았다.

2. 옛 예배당 공동작품으로 만들기

수련회 오전 시간에는 곧 사라질 ‘꽃동산이 만발한 예배당’의 모습을 타일에 한 조각씩
그렸다. 그 다음은 교인 중 도예 전문가가 유약을 묻혀 도자기 공장에서 그것을 구워 공
동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옛 예배당의 ‘타일 공동작품’을 새
예배당에 부착하여 선배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3. 정든 예배당의 벽과 바닥에 나의 결심 기록하기

구 예배당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온 교우들이 이제 곧 사라질 예배당의 바닥과 벽과 기둥에 감사와 고백과 헌신의 글을 적고 얹드려 기도하고 감격하며 눈물짓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 보관하였다.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새 예배당을 전 교우가 함께 방문하여 공간마다 그 장소를 가장 많이 사용할 세대가 대표기도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구 예배당에 대한 이별의 마음을 새 예배당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게 하였다.

4. 중보기도실을 메모리 홀로 만들기

새 예배당 안에 중보기도실의 창문 모양을 옛 교회의 창문 모양으로 설계 시공하고 옛 예배당을 상징하는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기억하기 위해 창문에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옛 예배당 외벽의 빨간 벽돌 일부를 잘 제거하여 중보기도실의 정면 강단 부분에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새 예배당의 빨간 벽돌과 옛 예배당의 빨간 벽돌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였다. 또 하나 중보기도실의 벽면에 옛 예배당의 다양한 사진을 부착하고 그 공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장례식을 모두 마친 후 고인의 얼굴이 포함된 가족사진을 제출받아 액자로 제작하고 비치하여 먼저 간 성도들을 기억하는 메모리 채플로 만들었다.

5. 신내교회 한 가족 십자가 만들기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기 전 교우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던 손가락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손가락으로 십자가 공동작품을 만들어 교회 4층 식당 앞에 부착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성도들이 사용하는 손가락으로 구현한 것이다.

6. 교회 이름 바꾸지 않기

교회 건축을 마쳐갈 즈음 교회 이름을 새롭게 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나는 교회 이름을 바꾸면 우리보다 먼저 헌신한 선배들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어가며 열매 맺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소신을 피력하였다. 김광년